

## 지역민 참여로 만들어 나가는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85년사 '기후로 바라본 광주, 그리고 우리' 도서 발간 착수보고회 개최

-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분석 및 전망, 참여 공모를 통한 기후변화 경험담 수록

- 광주지방기상청(청장 서장원)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원장 고상연),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최도성)는 1월 16일 광주지방기상청에서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85년(1939~2023)의 이야기를 담은 『기후로 바라본 광주, 그리고 우리』 도서 발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24. 1.16.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85년사(1939~2023) 발간 착수보고회>

- 지난해 여름부터 세 기관은 지역민들이 기후변화를 일상에서 더욱 가깝게 체감할 수 있고,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하는 방법론을 찾고자 머리를 맞대었고, 공동협업과제로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85년사(이하 역사서)’를 발간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 역사서의 제목은 ‘기후로 바라본 광주, 그리고 우리’ 로 총 3개 장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1장 ‘날씨가 그린 광주’에서는 광주 기후변화 현황 뿐만 아니라 지역민 대상의 공모전을 통해 위험기상에 따른 재해사례 등 기후변화 경험담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이며,
- 2장 ‘빛고을 어제, 오늘, 그리고...’에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요소를 연계 분석하여 “한여름 골목길에 이불 깔고 자던 시절” 등 추억이 가득한 옛 시절 지역민의 생활이 기후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동감 있는 사진과 함께 구성할 계획이며,
- 3장 ‘미래 기후’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으로 광주의 기후요소(기온, 강수량 등)와 극한기후지수(폭염일수, 한파일수 등)의 미래 전망 정보를 수록할 예정이다.

○ 11월에 최종 발간될 본 역사서는 지역민들이 살아온 삶의 발자국 곳곳에 묻어있는 기후변화 이야기를 담아 우리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생생하게 느끼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 기관은 역사서 발간을 통해 지역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광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김연희 (062-720-0660)
		담당자	주무관	이기혜 (062-720-0667)

담당 부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광주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책임자	센터장	김태호 (062-601-1370)
		담당자	연구원	고범석 (062-601-1376)

담당 부서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책임자	사무총장	김재주 (062-613-4170)
		담당자	부 장	김동관 (062-613-4174)

